▪ 교회소식 ▪

1. 특강 : 오늘 오후집회 시간에 안성영 목사(사랑교회)의 특강이 있습니다.
2. 설립기념행사 : 다음 주일은 청파교회 설립 110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오후 1:30에 기념행사가 있습니다.
3. 사진전시회 : 교회 역사 사진전시회가 예배실 2층 복도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4. 떼제 기도회 : 떼제 찬양과 기도회가 이번 주 수요일 저녁 7:30 교육관에서 있습니다.
5. 수요저녁성경공부 : 5월 9일부터 이범석 목사가 고린도전후서를 강의합니다. 수강을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6. 예배 생활 안내 :
   예배 시작 전에 도착하여 조용히 예배를 준비합니다.
   예배실 앞자리, 안쪽 자리부터 앉도록 합니다.
   예배실 안으로 음료수를 가지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물은 가능)
   휴대폰은 진동모드로 설정하거나 꺼둡니다.
   예배실 안에서는 예배 전후라도 기도하는 이들을 위해 정숙합니다.
7. 신앙실천 :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계속 기도합시다.

다음 주 설교 본문	롬 15:1~6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1부	김기석	공동기도	인도자
	2부	김기석	김기석	황현성

5월				
	1부 영접위원	강세기	헌금위원	이소애
	2부 영접위원	박범희 임주빈 김광일 김신실 최현옥 박미영		
	2부 헌금위원	장원호 김경혜		

오늘 식당 봉사	박홍재 정연희 안미순 김태정 김영희 윤성종 김태한 한상균		
다음주식당봉사	안정숙 이혜령 박소현 이수정 이미영 김정민 장병준 박상규		
오늘설거지봉사	5여선교회	다음주설거지봉사	6여선교회
커피 판매 봉사	3여선교회	다음 주 주차봉사	이동천

2018-17 4월 29일

110 Since 1908·5.1 기독교대한감리회 청파교회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우리를 주님의 몸으로 삼으소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 259 전화: 02)713-5254 www.chungpa.or.kr

주 일 낮 예 배 순 서

【 부활절 제5주 】 인도 1부 : 이범석 목사
2부 : 김재흥 목사

전 주 ····· 반주자

임재의 기원 ····· 38. 예수 우리 왕이여 ····· 다 함께

예배로의 부름 ····· 담임 목사

▲ 경배의 찬송 ····· 32. 만유의 주재 ····· 다 함께

▲ 공동기도 ····· 다 함께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의 새로운 시작이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남과 북의 정상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서로 웃는 얼굴로 만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는 남북이 전쟁체제에 종지부를 찍고 대화하고 협력하며 진정한 평화체제를 이루어 가게 도와주십시오. 평화의 주님, 남과 북이 흔들림 없는 발걸음으로 그 길을 갈 수 있게 지켜 주십시오.

주님, 권력자들의 횡포가 계속되는 이 사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가진 돈이 많고 힘이 많다고 아랫사람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는 이들을 벌하여 주십시오. 그들의 망가진 마음을 고쳐 주시고, 그 피해자들을 위로해 주시며, 이 사회가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법치주의 원칙을 잘 실현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참회의 침묵기도 ····· 다 함께

▲ 위로의 말씀 ····· 엡2:14a,16b ····· 인도자

▲ 교 독 문 ····· 99. 나라 사랑(1) ····· 다 함께

▲ 영 광 송 ····· 5. 이 천지간 만물들아 ····· 다 함께

2부대표기도 ····· 김재흥 목사

2부응 답 송 ····· 찬양대

2부찬 양 ····· 412. 내 영혼의 그윽히 깊은 데서 ····· 다 함께

▲ 성경봉독 ····· 행 13:4-12 ····· I. 인도자 II. 조항미 권사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봉독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함께

찬 양 ····· I. 믿음으로 갑니다 ····· 마중물 찬양대

II. 오 신실하신 주 청파 찬양대

▪ 헌금 영수기 ▪

십일조 및 월정헌금

고혜경 권혁순 박혜경 김경혜 김기석 김희우 김기철 김남종 오복순 김명희
김성우 박유경 김수경 김승현 김수진 김영옥 김용태 박정숙 김재환 김진선
김정규 이종옥 김정린 김종철 고영애 김중수 이순정 김중현 성귀옥 김지윤
정영우 김진우 임미진 김철수 유영남 김태은 김홍수 김희진 박홍재 노신후
노연정 문홍일 박미희 박시내 박영진 박재우 정충원 박지혜 백성래 서지온
서해나 손숙경 송형운 하미림 신문희 심해성 안미숙 오자영 이광석 이경희
이근식 신영신 이부곤 이수자 이유진 이주경 안상숙 이주영 오재영 이진영
한양미 이치림 강상연 이호원 임고운 오재형 임성택 임승동 백혜숙 임영
정경례 임찬양 장동훈 정은선 장원호 박성희 장재영 김재영 전성호 정연경
정원석 김현영 최옥자 최윤화 한지원 홍순복

감사헌금

강혜린 김영호 김태정 김희진 박홍재 박기원 이미영 박기태 박진주 박해숙
변재민 안홍숙 유우열 윤선호 임선아 은종인 이건호 김보민 이상도 이소영
이재문 임영선 장현희 정학성 김현숙 조미영 조유진 최혜정
박명제(아들전역) 은종인(장학회설립) 김일랑 이은옥(이사) 조옥희(이사)

생일감사헌금

김성수 김성아

녹색꿈헌금

유수진 윤미경 윤수진 윤선호 임선아

▪ 집 회 안 내 ▪

예배	시간	장소	예배	시간	장소
유 아 부	10:50	유아부실	1부 예배	09:30	대예배실
유 치 부	10:50	유치부실	2부 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성서학당	13:30	대예배실
중고등부	10:50	중고등부실	수요집회	11:00	교육관
청 년 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 **마음으로 읽는 글** ■

담쟁이

-도종환

저것은 벽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그때,
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

물 한 방울 없고,
씨앗 한 톨 살아남을 수 없는
저것은 절망의 벽이라고 말할 때
담쟁이는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다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
푸르게 절망을 잡고 놓지 않는다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담쟁이 잎 하나는
담쟁이 잎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

말 씀	**안개와 어둠의 세월을 넘어**	김기석 목사
거둠기도		다 함께
2부찬 양	366. 어두운 내 눈 밝히사	다 함께
▲ 봉 헌	317.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1,5절)	다 함께
▲ 봉헌기도		담임 목사
공동체 소식		담임 목사
▲ 평화의 인사		다 함께
▲ 보냄의 말씀		다 함께

인 도 자: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거짓과 불의의 길을 버리고 진실과 정의의 길을 선택하십시오. 안개와 어둠의 세계를 뒤로하고 빛의 세계로 나아가십시오. 주님이 주신 빛을 가슴에 품고 하나의 등불이 되어 사십시오.

다 함 께: 아멘. 빛이신 주님을 등진 채 어둠 속에서 살아가던 지난날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이제 삶의 방향을 돌이켜 주님을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거짓과 삿된 욕심을 버리고 진실과 정의를 실천하며 살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빛을 세상에 전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동행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 찬 양	635. 주의 기도	다 함께
▲ 축 복		담임 목사

주일 오후 집회	수요일 집회
특강 / 강의 : 안성영 목사	낮 집 회 / 설교 : 김기석 목사 저녁집회 / 떼제 찬양과 기도회

청파교회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groups/chungpa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

청파 아레오바고

2001년 8월에는 '청파 아레오바고'를 열고 청파교회의 사명을 더욱 구체화하고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작업을 하였다. 교회의 사명에 대한 열띤 토의가 있었고 청파교회가 해야 할 일에 대해 책임지는 마음으로 함께 생각하는 시간도 가졌다. 4일 동안 진행된 '청파 아레오바고'는 청파교회의 실상을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고, 교회를 사랑하는 교인들의 진심어린 마음도 드러나는 시간이 되었다. 또 참석자들은 다음과 같은 '2001년 청파 아레오바고 우리의 다짐'을 발표하여 청파교회의 사명을 재확인하였다.

우리 청파 신앙 공동체는 2001년 8월 26일부터 29일까지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같이 우리도 온전해야 한다"는 말씀을 중심으로 '청파 아레오바고'를 열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청파교회의 미래를 모색했습니다. 그리고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그것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지를 함께 고민했습니다. 우리는 '청파 아레오바고'를 통해 확증한 청파교회의 사명을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하나, 우리는 하나님께 온 마음과 몸으로 예배드리는 공동체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존재 전체가 하나님과 만나는 구별된 시간입니다. 청파 신앙 공동체는 예배를 삶의 축으로 삼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우리는 정성을 다해 예배에 참여하며, 생동감 있는 예배를 모색할 것입니다.

하나, 우리는 선교를 통해 믿음을 나누는 공동체입니다.
선교는 믿음을 이웃과 나누는 것입니다. 선교 없는 믿음은 자기만족적 종교심에 머무르기 쉽습니다. 청파 교우들의 말과 행동은 하나님의 선교를 위한 도구입니다. 우리는 지속적 기도와 구체적 시도를 통해 '한 영혼 돌봄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입니다.

하나, 우리는 친교를 통해 사랑을 키우는 공동체입니다.
친교는 타인을 위해 자신을 열어놓는 것입니다. 청파의 모든 교우들은 다른 교우들의 삶에 관심을 기울이며 시간과 정성을 낼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청파교회는 타인에 대한 무관심을 깨치고 참된 사귐을 연습하는 장이 될 것입니다.

하나, 우리는 비전 있는 교육을 추진하는 공동체입니다.
교육은 믿음의 승계를 위한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모든 세대의 교우들은 교회가 마련한 교육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성숙을 도모해야 합니다. 특히, 교회학교 교육의 재활성화를 위해 온 교우가 지혜를 모으는 한편, 실질적인 교육 자원을 양성하여 기독교 교육에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것입니다.

하나, 우리는 생명과 인권을 옹호하는 공동체입니다.
현대 사회의 병폐를 고발하고 그것의 치유에 나서는 것은 교회의 필수적인 책임입니다. 청파교회는 다른 교회와 연대하여 정의·평화·창조 질서의 보존을 위한 민간 활동을 지지, 혹은 지원하고 한가족 결연 사업, 장애아 목욕 봉사, 미혼모 쉼터 방문 등의 구체적 봉사 활동에 점점 더 많은 교우들이 참여할 것입니다.

하나, 우리는 지역 사회가 꼭 필요로 하는 공동체입니다.
평화롭게 더불어 사는 지역 사회를 위해 열려 있는 교회는 우리 시대의 요청입니다. 우리는 푸른 어린이도서실, 금요 미술교실 등의 활동을 활성화하고, 이를 위해 교우들이 자신의 재능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계발하도록 할 것입니다.

-「청파교회 백년사」 중에서